대통령 자문 건설기술 · 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선정

좋은 건축 · 좋은 도시

- 0709 대도심민간건축의공공성과기념성- 김옥길기념관, 웰콤시티
- 0710 틈새공간을찾아도시에새숨을불어넣는다. - 초록뜰, 하늘공원
- **0711 가치를담은건축을위해- 무주공공건축물과전주한옥마을**

※본기획의발췌문및사진자료는 ‘ 대통령자문건설기술 · 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의허락으로제공받은것이며, 전문은위원회홈페이지(www.acct.go.kr)에공개되어있다.

한나라의도시, 건축은그나라의경제적지표인가, 문화적지표인가? 근자에들어서울시강남구는간판정리사업실시를발표했고, 각도시들은자연뿐만아니라건축물들을대상으로한경관심의제등을도입했다. 전국지자체는도시의정체성을부여하는데고심하고있다. 반면, 일제해방과6.25 전쟁을거쳐경제고속성장을목표로왜곡되어온건축건설분야에대한문화적정체성의윤곽은희미하다. ‘ 좋은 ’ 건축에대한전문가그룹의견해는국가정책혹은대중적시각과좀처럼그간격을좁히지못하고있다.

따라서건축에대한미적관점을대중적으로공유하고, 건설분야에있어서도내실있는성장을추구하기위해어떠한공적, 행정적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지난 2005년 설립된 대통령 자문기구가 ‘ 건설기술 · 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이하위원회)라는단체이다.

현재김진애씨를위원장으로하는위원회는건설기술과건축문화혁신을통해전문인력의자문및협조를받아설계기술력과정책프로그램 기획력을 높이는 한편, 3D산업으로 취급받아온 건설 산업을 창조적이고 신뢰도 높고 경쟁력 강한 3C(Creative, Credible, Competitive) 산업으로전환시키겠다는전략을갖고있다.‘ 이달의건축환경문화 는이러한선진화전략의하나인 ‘ 함께하는건축도시문화확산 ’ 과제의일환으로, 위원회가건축/도시에대한미적인식을널리알린다는차원에서매월발표하고있는선정작업이다. 특히, 신축건물이아니라, 완공후3년이상이지나도여전히아름답고의미있는건축환경을현장답사를통해선정하고있다는점에그특징이있다. 위원회는 2006년4월선유도공원에서부터시작하여 2007년현재의재미술관에이르기까지달마다선정작을발표하고있으며, 이중앞선 13개작품들과그심사사유글들을모아홍보용단행본(<좋은건축 · 좋은도시>, 비매품)을출간하고언론과관공서답사를추진하는등의홍보활동을펴고있기도하다.

좋은건축, 좋은도시의기준이란무엇일까? 위원회를통한선정이결코절대적인평가가될수는없겠지만, 적어도일정기간에걸쳐충분히논의의가치를인정받은작품들임에는틀림없다. 이제반세기라는짧은건축사적 축적가운데서, 어떤미적준범이될만한것들을찾아내는노력이란점에서도의의가있다고본다.

본지는앞으로위원회의선정작들을소개함으로써, 미처다룰기회를갖지못했던작품들뿐만아니라이전에소개되었던작품들또한다시한번되짚어보는기회를갖고자한다. 매달건축저널기자, 설계실무진등의현장필자들이몇몇의작품들을특정주제로엮어그에대한소견을개진할것이다. 각글속에드러날필자들의견해는위원회나본지의의도와는다를수있으나, 오래된건축물의가치를상기하여돌아보는것이새로운소식을전하는것만큼이나건축저널리즘의의무이자기쁨인것이사실이다.

<편집자주>

펼쳐진전주한옥마을 ⓒ김재경

십수년을건축설계에종사하고있는건축가로서무주군공공건축물과전주한옥마을을바라본다. 그리고그행간에숨쉬고있는가치가무엇인가를생각해보고, 현재를돌아본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다 무주군 공공건축물들, 전주한옥마을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의주거환경과건축문화를현실속에서다르게가꿀수있고또한건강하게, 함께지속시킬수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나라 곳곳을 돌아봐도 미개발지든, 노후주택지든 일단 밀고, 부수고, 높고 크게 지어, 세계 유일무이한 아파트 주거문화를 창출한 현재 이 곳의 모습... 아파트 건설사가브랜드가되고그아파트가최고의주거환경으로선망의모델들과함께광고되고미화되며, 매년최고의최우수주거환경으로선정되어국민들의시선을 이끄는 이 곳... 이러한 시대논리와 괴리된 건축물과 지역을 다시금 주목한 이유는무얼까? 그이유는상식적인사회의건강성에대한기대와그가치의소중함, 그에따른결과물을높이평가한것이라고생각한다. 즉, 헤게모니를쥔시대논리에주도되지않고, 오히려그 지역그 곳에거주하는서로 다른처지에있는사람들이서로가 공유하는 환경을참여와소통속에서함께가꾸어간 사회적합의태도와실천과정에주목한것이아닐까.

무주군공공건축물을 먼저 둘러보자. 예를들면, 차량으로 가득찼던 관청마당이 주민들의 쉼터조차 없는 상점가 지역 속에서 열린 공원으로 개방되고, 장터가리 뉴얼되며, 면사무소 일부가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목욕탕으로 변신한다. 또한 그 지역의 아름다운 풍경이 ‘ 별보는 집 이 딸린 면사무소에 의해 되살아나 방문객을끌어들이고. 지역주민에게는자긍심을가져다주었다.

이러한변화의결과물을보면서, 제일먼저, 그러한환경이현실화될수있게하였던 모든 참여자들의 노력과 그들이 만들고자 했던 가치를 읽게 된다. 이와 같은 지자체의 대민자세 및 쌍방향적 의사소통과 합의,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자긍심, 사회적 코디네이터로서의 건축가의 참여와 봉사 등등이 무주군 공공건축물에대한 좋은 평가로서 회자되었던 걸로 알고 있다. 실제로 좋은 건축물, 완성도 높은 건물은 발주자-설계자-건설사가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합심할 때 발현된다. 즉, 많은 사람들이 수평적으로 참여하여 존중된 의견이 건축가에 의해서 발현될 때 좋은건축물로현실화되는것이다. 뿐만아니라점점더건물을설계하는과정이건

1. 흙을털고기어나오는애벌레모습을닮은 ‘ 곤충박물관 ’
2. ‘ 공설운동장 에서 ‘ 등나무운동장 으로이름이바뀐주민들의운동장
3. 농민을위한건축가의배려가담긴무주농민의집전경
4. 기존질서를존중하면서도새로운의미를만들어낸반딧불장터

축가만의작업이아닌, 모두의작업으로변하고있고, 이과정에서건축가의 사회적 조정자로서의역할이중요해지고있다. 무주군공공건축물들은 이러한과정이 잘 조화되어구체화된좋은사례이자지자제 거주환경변화의선구자적인역할을 했다고보고싶다.

전주한옥마을도마찬가지이다. 한옥마을이라고하지만, 꼭 잘된 한옥들이라고 할 수도없고, 더군다나일제강점기의한옥유형도보이면서, 현재건축양식의건물들도 상존하는 이 곳을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한옥마을이라고 칭할 수도 없다고 본다. 하지만, 보다중요한건건축물의양식과그수준이아니라, 누가그곳에살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생각한다. 비록 짝퉁한옥(?)이라도 그것이 오랜 세월동안 자리 잡으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담아가면서 세월의 변화에 적응하고견디어낸주거환경이될때, 비로소생활문화로서자리잡게된다. 이는주거문화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특성이자 현상이라고 본다. 이 곳, 전주한옥마을에서도마찬가지현상을발견할수있다. 이곳주민들도이시대를살아가는사람으로서 주거가 가지는 재산적 가치와 돈의힘을 모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그래서이곳을지자제의지원과함께 마케팅화하여 자신들의생계와직접적으로 결부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하지만 그들에겐 중요한다른 점은 자신들의 터전을 부수고 새 곳으로탈바꿈시킨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함께 가꾸면서 세월의 변화에 적응하였고, 이제 그곳을 많은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들의삶의터전이문화가되고가치가된것이다.

한탄 恨歎 무주군 공공건축물과 전주한옥마을을둘러보면서, 사실 가장 먼저떠오른상념은설계작업의현실과직업에대한자괴심이었다. 어떤건물이, 어떤곳이, 좋은 곳이며 좋은 건물이라는 걸 알고 이끌 수 있고, 또 그것이 얼마나 이 시대, 이곳의사람들에게중요한것인지를알면서도, 대부분의우리작업은그현실과얼마나거리가먼가? 생계와생존을위해서개발논리의‘ 건설문화창달 에서 비스하고있고, 현상당선을위하여‘ 눈높이설계 에 스스로를길들여야하는우리네들...‘ 설계심사의 공정성 을 항상 서로 의심하며 경계해야하는 경쟁구도... 물론 이는 결국변명에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건축가의소신 있는 사회적 참여와 봉사가 제도적으로나 공공프로젝트의 수행방식에 의해서 갈수록 제약받고, 그 자율성을 침해받는 시점에서 이를 건축가 집단의 내부적인 문제와책임으로만돌리기에는문제가있다고본다. 건축문화육성을이야기하면서, 건설기술이먼저언급되는정부태도에대한항의도숨기고싶지않다.

이러한현실이상존하는 이때에, 무주군 공공건축물과 전주한옥마을에서 보여준, 지자체의 태도와 관심, 그리고 지역주민의 자발성, 건축가의 사회적 역할과 봉사 등은매우고무적이다. 희망이라는단어를가슴속에다시금뭉클거리면서, 건축가의사회적태도와자세에대해다시금곱씹어보게한다.

가치를담은건축- 좋은건축, 좋은도시 디자인은문화와불가분의관계이다. 몇년전서부터기업의화두가디자인경영으로바뀌었고, 이제사회전반에디자인과 문화에 대한 관심과 담론이 널리 퍼져있고, 상응하는 국가시책도 발표되고 있다. 지자체에서도그 지역의문화적 배경을근간으로한장소마케팅이이슈와 현실로 자리 잡아, 지역사회의 경제와 자긍심으로 연결되어가고 있기도 하다. 모두가 디자인에 열광하고 디자인을 부르짖는다. 디자인이 트렌드가 되고, 브랜드가 되고 있다. 국내유명제품이 세계적 유명디자이너에의해 디자인되고 판매된다. 주거환경조차 유명디자이너에 의해 높은 가격의 상품으로 포장되어 판매되고 있다. 이 시대에당연한현상이다.

그러나반문하고싶은것이있다. 디자인을이야기하기전에먼저가치를이야기해야하는것아닌가? 오감이즐거운디자인을말하기전에, 마음이즐겁고서로가나눌수 있는디자인을잊지말아야하지않는가? 건축문화를이야기하기전에무엇이우리네삶과환경속에서값지고소중한것인가를놓치지말아야하지않는가? 우리는, 바로여기, 이땅이곳에서, 지금, 더불어, 살아가고있다.

이사회 모든 구성원들이무엇이값지고소중한가를 잊지 않을때, 좋은건축, 좋은도시가나올수밖에없다고생각한다. 그사회, 그지역의공동체적삶의가치와리얼리티를담는건축, 내겐그만큼좋은건축, 좋은도시도없다.

글/ 명재범(위무위건축사사무소), 사진/ 김재경

1. 무주군면사무소연작중하나인부남면사무소전경
2. 건축가(정기용)이무주군의뢰로처음으로지은안성면사무소
3. 풍남문전경
4. 한국천주교최초의순교터에세워진전주전동성당
5. 태조이성계의영정을봉안한경기전
6. 전통한지만드는모습
7. 정통찻집다문(茶門)
8,9,10. 공예공방촌

명재범 고려대학교건축공학과와동대학원을졸업하고(주)정림건축에서실무를쌓았다. 현재위무위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작품으로는 현대해상 광화문 사옥, 피카다리 플럿, 헤이리 D-1-5 등이있다.